| 현불 논단 |

눈 맞춤으로 소통하자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간, 언어 · 비언어적 소통해
대화 · 표정으로 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소통 위기' 초래해

몸짓 · 표정 · 억양 등 포함된
비언어 의미 전달 93% 달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단절
거울보며 밝은표정 지어보자
자신과 '눈 맞춤'하며 성찰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서 이뤄지며, 우리의 일상적 대인관계는 물리적 만남을 기본으로 한다. 만나서 말로 대화하고 표정으로 소통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처럼 물리적 만남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 이것이 인간 삶의 일상이다.

삶 속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쩌다 경험하게 되는 루틴한 일상의 파괴는 평상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의 물리적 만남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상적 패턴을 파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사회는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신체적 접촉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우리는 막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에 의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짧은 순간의 눈 맞춤이나 표정이 훨씬 더 의미심장 하듯이 말 없음, 즉 비언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알고 보면 높다. 비언어가 의미전달의 93%를 차지하며, 표현수단으로서의 언어 대 비언어의 비율이 35대 6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의 양이 많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다.

비언어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인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몸짓, 표정은 물론이고 옷차림과 현장 분위기, 그리고 말의 강세와 억양 등이 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언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비언어는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비언어는 언어 뒤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주는 도구라고도 하다. 사람의 본심이 때로는 말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비언어적 소통은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고정하고, 미소 지으며 경청하는 얼굴 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인 에머슨(Emerson)은 "사람의 눈은 그들의 말과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눈 맞춤은 관심, 매력, 친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설득력, 공신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심지어 거지가 행인으로부터 돈을 얻으려고 할 때, 구걸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도 눈 맞춤이다. 눈 맞춤이 설득의 성공 열쇠일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코로나 사태의 종료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개인은 집안에, 사회는 온라인 속에, 그리고 국가들은 국경에 갇혀 있다. 우리야 사정이 다르지만 육지에 접경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는 심각한 현실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물리적 만남을 통한 공존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인간이 극복해야 할 불편함과 압박감에 다름 아니다. 물리적 접촉이 제한되어 루틴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일상이 깨어진 지금 거울을 보며 밝은 표정 짓기를 연습하고, 거울 속의 자신과 눈 맞춤하기를 통해 내면 들여다보기를 일상화하는 것은 어떨까. 희망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社 說

은닉 성보 몰수 확정 '환영'

불교 성보 문화재를 수십 년 동안 은닉해 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내려졌던 유죄 선고와 '몰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도난으로 인해 제 자리에 갈 수 없었던 불교 성보들이 '환지본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반가울 뿐이다.

대법원 1부는 6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양형은 유지됐으며, 은닉한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떨리는 심정으로 지켜봤을 조계종과 피해사찰 관계자들은 판결 이후 비로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A씨가 사건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에서는 '몰수' 선고가 나질 않았다. 그런 이유로 39점의 은닉 성보들은 사찰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2심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제 39점의 성보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며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첫 몰수 명령을 내린 2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근절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공소시효 연장과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잃어버린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한국전쟁 70년, 이젠 반목 없어야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 속에서 불교계 각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발원하는 법석을 이어가고 있다.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분단의 아픔을 종식하고 이제는 전쟁과 갈등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상생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강원도 철원 소이산 정상에 올라 한국전쟁 당시 희생자와 유주무주고혼의 넋을 위로했다. 소이산 정상은 드넓은 철원평야와 백마고지에 둘러싸여 남과 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철원평야과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던 최대 격전지다. 한국군과 북한군, UN군과 중공군 가릴 것 없이 이념의 프레임 속에서 끝없이 싸우고 죽어갔다. 그렇게 희생된 사망자만 20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날 천도의식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일깨우는 법석이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같은 날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패널에 남과 북에서 이어진 평화의 리본을 하나로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평화통일실천발원문'을 낭독하고 "불살생의 계율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지켜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동시에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은 6.15선언을 채택한지 꼭 20년째 되는 해다. 반세기 반목과 희생으로 얼룩진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의 상처 없이 평화와 상생으로 꽃피우길 발원해 본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나무아미타불'이란 하직인사

이내 육신 나기전에 그 무엇이 내몸이며
이세상에 태어난뒤 내가 과연 누구런가
장성하여 사람노릇 잠깐동안 나라지만
두 눈 한 번 감은 뒤엔 나는 또한 누구런가
울적엔 기쁘다고 갈적엔 슬프다고 속절없이
인간에와 한바퀴를 돌다가네
애시당초 오잖으면 갈 일마저 없는 것을
기쁜 마음 없는데야 슬픔인들 있을손가


그림 · 최주현

요즘은 순치황제 출가시를 염불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 달엔 서너 번 장례식장의 입관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모두 예상하지 못한 임종을 맞이했기에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회한은 깊었다. 입관을 하며 마지막 하직인사를 하는 장소에서 울고있는 그들에게 이 염불을 통해 인생의 무상을 전달하고 싶었다.

고인을 보내는 자리에서 하직인사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잘 가세요"라는 인사가 전부이다. 평소에도 하는 말이건만 이 인사가 하직인사일 때는 아주 진한 회한의 무게감을 갖게 된다.

한 보살님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달려왔다. 밥을 한 냄비 짓는 꿈이었는데 제사밥이 연상되면서 그것이 꼭 투병 중에 계신 어머니의 임종을 알려주는 예지몽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살님은 근래에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49재 중이었기에 더욱 예민했고 불안해 하였다.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임종은 후회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라 더욱 회한이 남았다. 납골당에 모셨는데 남편에게 미리 물어보지 않은 것도 걸리고,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 것도 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도 마음 아프다며 목놓아 우는 보살님의 손을 잡고 함께 머물렀다. 보살님은 남편에게 그 때 하지 못한 하직인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거사님은 사회 초년생일 때 회사의 대표이자 존경했던 인생 선배의 부고를 늦게 듣고 납골당을 찾아 뒤늦은 하직인사를 한 뒤 절을 찾았다. 고인의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진행한 후에야 지인들에게 부고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암투병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전화만 드렸을 뿐 한 번 찾아뵙지 못한 것이 너무 죄스럽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가하면 아직은 하직인사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도 있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오빠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심정인 가족들은 그냥 말없는 말로써 인사를 전한다. 일주일마다 재를 지내며 나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직인사를 전한다.

슬픔이 터질까봐 참고 있는 가족들의 애씀을 뒤로하고 영가를 향해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사진 속 영가는 비로소 미소로써 화답하는 듯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3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 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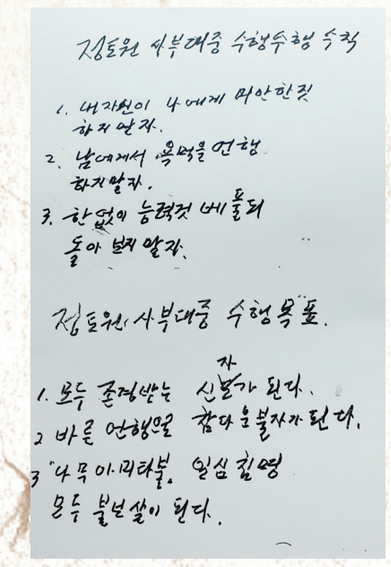
- **일 시** :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30분
- **장 소** : 부산항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5층)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성우 대종사(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수불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2대회장)
  존증아사리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존증아사리 지운 스님(동화사 율주)
  존증아사리 경성 스님(해인사 율주)
  존증아사리 심산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존증아사리 만초 스님(전법도량 의장)
  존증아사리 원허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051-501-7554)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의 부친께서 2020년 6월 8일 16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 : 선진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장)

마지막 가시는 길,
따뜻한 위로와 명복을 빌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49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별세 이틀전 남기신 유훈

	일시	장소
초재	6월 14일	봉화산 정토원
2재	6월 21일	
3재	6월 28일	
4재	7월 5일	
5재	7월 12일	
6재	7월 19일	
막재	7월 26일	

상주 : 선기, 선혜명, 선건 배상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 136-200
전화 055)342-2991